

여수시, 2022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전국 '최우수상' 수상

2021년 '우수상' 이어 2년 연속 수상...도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 노사갈등 조정·산단 산업재해 추모탑 건립 등 노사협력 인정

여수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남 도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2021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받는 등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노사민정 협

력 활성화사업 평가'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6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사업 실적, 우수사례 발굴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여수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독립 사무국을 운영하며, '필수종사자 등 대상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노사 분쟁에 따른 갈등조정 SOS사업' 등 다양한 노사민

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해왔다.

특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탑 건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작업복 공동세탁소 건립'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노동자 복지시책이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 실정을 반영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 급식소 및 조리 종사자 선정

조리실 위생 개선도와 사업 참여도를 평가해 시상

고흥군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재남, 이하 "고흥군센터")는 지난 22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41개소를 대상으로 우수 급식소 및 조리종사자를 선정했다.

고흥군센터는 올 한해 순회 방문지도를 통해 '조리실 위생 개선도'와 '사업 참여도'를 바탕으로 관내 우수시설 2개소(송원대학교 총장 표창)와 우수조리종사자(센터장 표창) 2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어린이급식소에는 하순어린이집, 도덕지역아동센터가, 우수 조리종사자에는 과역어린이집 윤운순 조리사, 녹동제일지역아동센터 주미순 조리사가 선정돼 시상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은 "언제나 어린이 건강 증진 및 급식 관리에 힘써주시는 고흥군센터 직원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급식시설에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송원대학교와 고흥군센터가 함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급식 영양관리, 시설 위생관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2023년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예산 절감 및 주민 참여형 설계 추진

순천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023년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설계단은 시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총 16명을 3개 조로 편성했다. 주민숙원사업인 농업기반시설, 마을안길, 하천, 하수도 등 총 314건 56억여 원 사업을 자체 설계한다.

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민숙원 사업인 만큼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설계를 추진하고 영농기 이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각종 건

설사업 시행 시 설계 시작 단계부터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도면작성 등 경험 많은 직원들의 지도로 설계의 내실화뿐 아니라, 건설공사 시공에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건설과 백종인 과장은 "최근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을 합동설계단에 참여시켜 숙련된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배양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합동설계단 운영이 각종 건설 사업의 조기 발주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자체 설계를 통해 5억여 원 가량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장수체조 지도자 간담회 개최...활동방향 논의



광양시보건소(소장 정흥기)는 지난 22일 건강백세 광양시 조성을 위해 보건소 소속 장수체조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감사별 마을 배정, 운영일지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장수체조 지도 활동에 대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2023년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장수체조 참여 마을 어르신들께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건강백세 장수체조를 위한 어르신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장수체조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건강도시 광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지자체... 특교세 인센티브 7천만 원

보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성군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보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특별 캠페인 실시, ▲지방 공공요금 감면 및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원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의 가계 상황 안정 등을 위해 추진

한 물가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쁘고, 앞으로도 군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살기 좋은 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고물가 시대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 특별 추진실적 등 지방물가 관련 6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해 '가'부터 '라'까지 4개 등급을 부여한다.

보성=김덕순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